

전남도, 남해안남중권 중장기 발전 밑그림 그린다

경남도와 '발전전략 연구' 보고회 경제·문화·교통·물류 계획 수립 지역 균형발전 모색 지자체 협력

갈수록 인구·경제 등에서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가장 먼 전남도와 경남도가 함께 공동발전 방안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생활·경제권이 겹치는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를 연계한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경남도와 공동으로 7일 광양시청에서 '남해안남중권 발전전략 수립 공동연구' 착수보고

회를 가졌다.

지난 2월 전남도, 경남도, 광주전남연구원, 경남연구원 등 4개 기관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남해안남중권을 중심으로 도약하는 미래상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향후 10년 발전방안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해당 사·군도 참석해 협의회 차원의 공동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남해안남중권 대내외 여건과 정부 정책 분석을 통한 비전과 목표를 정하

고, 경제·산업, 문화·관광, 교통·물류 분야별 발전 전략과 실행계획 수립 등 주요 과업을 바탕으로 남해안남중권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를 집중 연구해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 공약이 반영되도록 정부 건의 활동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광주전남 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연말까지 수행한다.

명칭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비대해진 수도권에 대응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용역이 남해안남중권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관련

지자체와 연구원이 모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경남도와 공동으로 오는 2023년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 결의 및 지정 촉구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지난 2월 'COP28 유치위원회 정기총회'에서 공동유치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록 전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장인 윤상기 하동군수,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 7개 시장·군수가 이름을 올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14~16일 인공지능 인재 채용 행사

광주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동구 금남로 광주 인공지능 창업캠프에서 '인공지능 기업 맞춤형 인재 채용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행사는 광주에 설립되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인 NHN을 비롯한 광주 인공지능 관련 유치 기업 21곳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행사에서 50여명의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광주 지역 고교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으로 사전 신청과 현장 접수를 병행하고 채용 기간에는 기업별 맞춤형 면접을 진행한다.

이용원 시장은 "인공지능 전문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면 지역 취업준비생에게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설립, 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 기업 유치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드론·e-모빌리티 등 미래형 운송기기 기업 전남도, 2년간 17억 지원

전남도가 e-모빌리티·드론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형 운송기기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미래형 운송기기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지난 해까지 3년간 실시한 'e-모빌리티 기업 역량강화사업'에 지원 분야를 드론 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2년간 총사업비 17억원을 도내 e-모빌리티·드론기업 및 투자유치 대상 기업에 지원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초소형 전자기 등 e-모빌리티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제품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드론 운송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증지원 ▲드론시장 확대에 따른 공공 운송 서비스별 상업적 적용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e-모빌리티 기업의 경우 4월부터 전남도와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 및 한국스마트모빌리티협회 누리집에서, 드론 분야는 6월께 전남도와 고흥군,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포스코 방문한 환경부 장관 한정애(앞줄 가운데) 환경부 장관과 김영록(맨 왼쪽) 전남지사가 7일 오전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 이동렬 선강담당부소장 안내로 3고로 브리더 개선상황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세계 최대 은행과 공동 중국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자·기업 등 100곳 참여 광주경제자유구역·AI 기업 소개

광주시는 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K스튜디오에서 중국공상은행과 공동으로 온라인 중국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국 투자유치 설명회는 지역 유망기업의 중국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와 중국 공상은행이 함께 마련했다.

중국 공상은행은 1984년 중국 4대 국영상업은행으로 설립돼 현재 중국 내 1만6000개 지점과 해외 49개국 1500개 지점 및 법인을 운영하고 있

며, 2020년 기준 연매출만 1008조원이다.

지난해 영국 '더 벵커'에서 선정한 글로벌 100대 은행 7년 연속 1위,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2000대 기업 7년 연속 1위 기업이기도 하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에 관심이 있는 중국투자자와 중국 정부기관, 중국진출에 관심이 있는 지역 기업 등 총 1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으며, 광주경제자유구역과 투자환경 소개, 지역 인공지능 유망기업인 ㈜지니소프트, ㈜사이버메디, ㈜피티지 등 3개사의 기업설명 등 순으로 진행됐다.

또 중국 공상은행은 자체개발한 글로벌 투자자

정보 온라인 플랫폼과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2021년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대해 소개했다.

오는 11월 33만㎡(10만평)의 대규모 행사장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글로벌 500대 기업 80% 이상이 참가하는 중국 최대 박람회로, 광주지역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매년 참석하고 있다.

이용원 시장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동차, 에너지, 인공지능 융합 등 미래산업을 육성할 경제자유구역 마련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광주에 투자하면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온실가스 11만 감축 세수 17억원 확보 효과

광주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을 운영한 결과, 11만3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17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배출권을 할당하고 해당 업체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배출권을 구입하고 이보다 적으면 판매하는 제도다. 광주 대상 시설은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정수장 등 14개 환경기초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공정 개선,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노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흥 오리농장 AI 의심사례

장흥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장흥군 장평면 한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출하전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전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2만5000수를 살처분했다. 또 반경 10km 내 방역지역에 있는 닭과 오리농장 25곳에 대해 30일 간 이동제한 조치하고 정밀검사를 한다. 전남에서는 지난 겨울부터 현재까지 9개 시·군에 걸쳐 가금농장 20곳에서 고병원성 AI(닭 3만·오리 17천)가 발생했다. 전국에서 10개 시·도에 걸쳐 가금농장 108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우수콘텐츠잡지 2021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1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문화 재생, 삶의 이야기 "살아난다, 골목길"

- 개성 입은 광주-전남 문화 골목길
- '마을이 미술관' 양림골목비엔날레를 가다
- 그 골목 들어서면, 영화 감성 살아나요
- 꼭 가보고 싶은 전국 골목여행지 베스트 3

문화 화제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Minds Rising, Spirits Tuning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문화를 품은 건축물
거장의 조형언어로 구축한 공간
대전 이용노미술관

클릭, 문화현장
아담하지만 파워풀한 기획전으로 사랑받는
'정읍시립미술관'

예향이 만난 이 사람
마운드 아쉬움 뒤로하고 또 다른 야구 인생 걷는 박지훈

에향 초대석

시(詩)의 길 40년, 시집 출간 광재구 시인

"하루 8만 6400초가 다 시죠"

우리 땅 우리 문화
고졸한 자연석 성곽
고창읍성

살고 싶은 집, 이야기가 담긴 집
작은 중정에 흐르는 여유
광주 화정동 '녹원재'

정확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이슈 '이슈 우하 전집'
"한 마리인 하지, 하지만 사자야"

문화 화제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
BTS의 빌보드 저력

문화 트렌드
K드라마 흥풍에 일봉서
한국 음식 열풍

문화 비어리즘 퍼뜨리는 예술단체
새로움 낳은 퓨전국악밴드
'화양연화'

싸들싸들 남도 한 바퀴-함평
생명이 약동하는 너른 처지,
강평 자연여행

무성한 마을숲과 절의 역사
- 함평전지향우, 나비밭, 단호박